

GS칼텍스, 부두에 선박 유도시스템 설치

GS칼텍스 여수공장은 11월29일 월내동 부두의 안전한 선박 입·출항 관리를 위해 3억6000여만원을 들여 덴마크 Marimatech AS의 최신 레이저 타입 선박유도시스템((DAS: Docking Aid System)을 최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.

대형 전광판 형태의 설비에는 선박의 거리와 접근 속도가 표시되는 DLD(Digital Large Display Monitor) 장치와 선박의 거리 및 접근 속도를 탐지하는 레이저 센서 2기, 풍향·풍속계 모니터 등이 완비돼 있다.

선박유도시스템 설치로 도선사와 선장들은 선박 접안시 육안이 아닌 DLD 데이터를 통해 부두와 선박간 거리 및 접근 속도를 확인할 수 있고, 조종실에서 원격으로 선박의 계류상태(부두 보호막으로부터 분리간격 또는 압착상태)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.

GS칼텍스 관계자는 “5만톤급 선박이 정박하는 중형 부두에 최신 설비를 갖춘 것은 매우 드문 사례로 시스템 설치로 부두 시설물 보호는 물론 선박의 안전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”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6/11/29>